

2015

박근혜 대통령
G20 · APEC
ASEAN+3 · EAS · 한·ASEAN 정상회의





G20 SUMMIT
ANTALYA | TURKEY

ASEAN+3 | ESA | KOR-ASEAN
KUALA LUMPUR | MALAYSIA

APEC SUMMIT
MAYNILA | PHILIPPINES

2015 박근혜 대통령

G20
APEC
ASEAN+3 EAS 한·ASEAN
정상회의

2015.11.14. - 2015.11.23.



APEC
PHILIPPINES
2 0 1 5



Our People. Our Community. Our Vision
MALAYSIA 2015

G20

2015.11.15. - 2015.11.16.

P.3

- G20 정상회의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
- 한·영국 정상회담
- 한·인도 약식 면담

APEC

2015.11.18. - 2015.11.19.

P.11

- APEC 정상회의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Session 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Session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 한·캐나다 정상회담
- 한·필리핀 정상회담
- 한·페루 약식 면담

ASEAN+3

2015.11.21. - 2015.11.22.

P.21

EAS

한·ASEAN

다자회의 무대에서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G20, APEC 정상회의 및 ASEAN, EAS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순방 일정은 다자적 차원에서 경제, 지역협력 및 안보 분야의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하는 행사로 구성됐으며, 박 대통령은 다양한 다자회의 무대에서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 창조경제 등 우리의 구체적인 정책경험을 소개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통합 및 안보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상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바쁜 다자회의 일정 속에서도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통해 기업활동 지원(필리핀 전기요금, 인프라 진출), 양자 FTA 진전(한·베트남 FTA 비준, 한·멕시코 FTA 협상재개 가능성 타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로를 마련했다.

금번 순방은 9월 중국 방문 및 유엔 총회 참석, 10월 미국 방문, 그리고 최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등 연이은 정상외교 성과에 더하여, 지역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한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G20 SUMMIT
2015.11.15. - 2015.11.16.
터키 안탈리아

“

최근 글로벌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고,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확대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G20 정상회의 세션 I 선도발언 中



G20 SUMMIT

의 제

01 세계경제 회복 강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02 회복력 제고

03 지속가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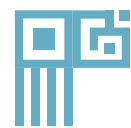
일 정

2015
11.15.

- 단체 기념촬영
- 정상 업무오찬 I
개발, 기후변화
- G20 정상회의 세션 I : 포용적 성장
세계경제, 성장전략, 고용, 투자전략
- 한·영국 정상회담
- 리셉션 및 문화공연
- 정상 업무만찬 : 글로벌 도전과제
테러리즘, 난민 위기

2015
11.16.

- G20 정상회의 세션 II : 회복력 제고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부패, IMF 개혁
- 정상 업무오찬 II
무역, 에너지, 코뮤니케 및 안탈리아 행동계획 채택,
차기 의장국 발표
- 한·인도 약식 면담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

01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의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G20 회원국 중 2위
- 성장전략의 GDP 제고효과는 2014년 1위
- 최근 이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와
일맥상통
-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15.9) 등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 유지
- IMF,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국으로
평가('15.6)
-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15.1)
- OECD, 창조경제를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사례 중
하나로 평가('15.10)



INCLUSIVE AND ROBUST GROWTH



1
G20 정상회의 세션 | 20151115

02 G20 정상선언문 및
안탈리아 액션플랜 마련에 크게 기여

03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하고 완만한 조정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제안

-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합의,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

04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 성공을 지지하는
G20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

-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중간자적 가교 역할로,
COP21의 성공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 도출에 기여





“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원만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합니다.

”

G20 정상회의 세션 II 선도발언 중



2015.11.15. - 2015.11.16.
터키, 안탈리아



1 2 3 4
정상도착 및 정상단체 기념촬영 | 20151115
5
G20 정상회의 세션 | 20151115





한·영국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지역 정세, 테러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양자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 등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구체적 실질 협력 분야의 진정 방안을 논의했다.

- 원전 대화체를 통한 원전건설, 해체, 중소형 원전 등에 대한 협력 가능성 논의 평가
- 양국 관계기관간 공동 펀딩으로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점 환영
- 양국의 선박건조기술과 설계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강점을 살려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
- 재외국민 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남수단 등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 모색



금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카메론 총리」와 두 번째 개최한 회담으로, 양자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당면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 2 3 4

한·영국 정상회담 | 20151115



한·인도 약식면담

금번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인 터키 안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의 관련 일정을 모두 소화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 회담은 인도 측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지난 5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지 약 6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먼저 최근 양국간 직항노선을 증대키로 합의한 데 대해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내년 4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도 해양투자박람회>에 우리나라를 주빈국 정상으로 초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APEC

2015.11.18. - 2015.11.19.

필리핀 마닐라

“

역내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태 지역 총생산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교용창출의 효과가 크며,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여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태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 자유무역지대 실현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이 함께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역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지원 등을 통해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APEC 정상회의 세션 I 발언 중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APEC 의 제

- 0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 0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일 정

2015
11.18.

- 한·캐나다 정상회담
- 한·필리핀 정상회담
- ABAC과의 대화
- 태평양동맹과의 비공식 대화
- 한·페루 약식 면담
- 환영 만찬

2015
11.19.

- 정상 기념촬영
- APEC 정상회의 세션 I
- 정상 오찬
- APEC 정상회의 세션 II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



1 2 3

APEC 정상회담 기념촬영 | 20151119

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through Integrated Economies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through Sustainable and Resilient Community



ABAC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과의 대화 태평양동맹과의 비공식 대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과의 대화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 정상, ABAC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 지속가능개발 증진 주제에 대해 우리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육성과 관련 규제개혁을 서비스 산업 발전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태평양동맹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APEC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 간의 협력 방안에 관한 토의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동맹과 APEC간의 협력 잠재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금번 대화는 APEC과 PA 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APEC과 PA 회원국 대부분의 정상이 참석하여 상호 우호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 2
ABAC과의 대화 | 20151118



한·캐나다 정상회담

“

총리님께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님과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신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FTA 체결로 커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토대로 과학기술 등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정상회담은 캐나다 신정부 출범 2주만에 개최된 것으로,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바 있는 한·캐나다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 2 한·캐나다 정상회담 | 20151118

01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 체결 등 창조경제 분야 협력 확대

02 에너지신산업, 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지원 공조 강화

03 한·캐나다 FTA 이행촉진을 통한 교역 확대에 공조

“

한국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를 쌓아 나가고, 경제적 번영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필리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제27차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국방·방산, 교역·투자 및 인프라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식품가공, 재생에너지, 민관협업(PPP)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발전 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시 협의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정책협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번 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이래 3번째 개최된 것으로, 동 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협력분야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01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추진

02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03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의 진전을 통한 상호 교역 확대

1 2

한·필리핀 정상회담 | 20151118



한·페루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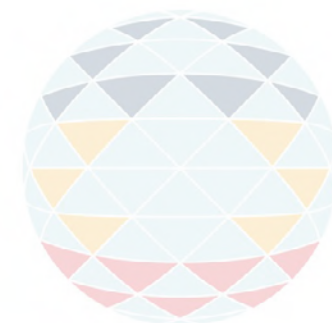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필리핀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이어 18일 오후, 「오안타 우말라(Ollanta Humala) 페루 대통령」과 약식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KT-1P 사업 등 금년 4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내실 있는 이행을 통해 현재 최고수준에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양국은 2012년 11월 KT-1P 4대를 직수출하는 한편 16대를 페루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페루 방문시 <KT-1P 공동 생산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우말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를 표하고, 페루내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마지막으로 올해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성공적인 신(新)기후체제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하면서 약식 면담을 마쳤다.



APEC
PHILIPPINES
2015



2015.11.21. - 2015.11.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SEAN 공동체 비전 2025」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행동계획」입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 위에서 우리 ASEAN+3 회원국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더 큰 통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라는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ASEAN+3 정상회의 발언 中

ASEAN+3 정상회의

ASEAN+3의 협력방향에 대한 세가지 의견 제시

01 ASEAN+3의 강점인 기능협력 강화

- 'ASEAN+3 뉴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금융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위험 방지 및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로 개선
- 'ASEAN 과학기술 혁신행동계획(APASTI)'을 ASEAN+3 차원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의

02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II)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03 동북아와 ASEAN 간 상호 협력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ASEAN과 한·중·일 3국 협력체가 각각 공고해지는 기초 위에서, 두 체제간의 상호 연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ASEAN+3가 연결과 협력의 중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



1 2 3 4
ASEAN+3 정상회의 | 20151121

ASEAN+3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ASEAN+3 정상들과 함께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 참석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혁신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망 진출 참여 촉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를 통한 교역투자 증진 등 EABC의 권고사항을 청취하고, ASEAN+3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ABC(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ASEAN+3 회원국 기업들의 협의체로 2004년 창설이후 매년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을 ASEAN+3 경제장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상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 6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 | 20151121

EAS 정상회의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의 의제

- 지역안보 정책 및 구상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 비정규 이주자와 인신매매
- 지역 및 국제 정세

박근혜 대통령은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여타 EAS 회원국 정상들과 전통적 안보이슈,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EAS 정상회의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전 세계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등의 상황 하에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정상간 전략포럼으로 시의성이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향후 EAS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 2 3
EAS 정상회의 | 20151122



- 전통적 안보 이슈
 - 동아시아 지역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
- 남중국해 문제
 - 한국은 그간 여러 계기에 걸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온 바 있음
 -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
- 비전통적 안보 이슈
 -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등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공동제안)’,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성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 채택
- EAS의 미래 발전 방향
 - EAS가 전략포럼으로 발전하되 기능 협력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지역 이슈와 범세계적 현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뤄야함을 강조

한·ASEAN 정상회의



금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ASEAN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ASEAN은 금년 8월 채택된 <한·ASEAN 행동계획 2016-2020>을 나침반으로 하여,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라고 말하고, ASEAN 공동체의 기본 문서인 <ASEAN 공동체 비전 2025>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이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ASEAN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고, ASEAN 내 연계성 제고와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공유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번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는 2015년 말 ASEAN 공동체 출범으로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제고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양측이 상생의 동반 성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 2 3 4 5
한·ASEAN 정상회의 | 2015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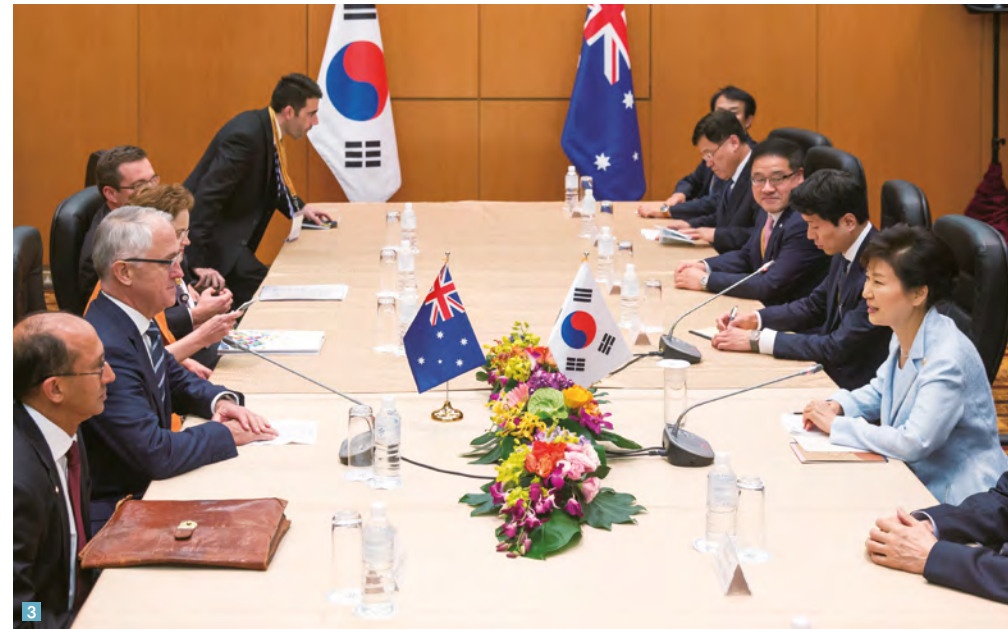


한·호주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중견국으로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FTA 발효(‘14.2월), 미타(MIKTA) 공동참여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턴불 총리」는 이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또, 양 정상은 이어지는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ICT, 자원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01 ICT 협력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 확대와 ICT신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R&D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
- 02 한-호주 FTA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년 4월 추진된 양국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약정 체결 등 양국이 추후 협력분야를 서비스, 에너지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
- 03 자원협력 유연탄광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호주 측의 관심과 지원 요청



G20 정상선언문

1 서문

01

우리 G20 정상들은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5-16일 안탈리아에서 만났다. 우리는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02

우리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올해 우리는 공약 달성을 위한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에 관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또한 금번 의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개도국과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2 경제회복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증진

03

일부 주요 국가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불균등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는 점점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04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05

작년 브리즈번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가적으로 2%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수요진작 및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년간 공약중 절반이 이행되는 등 작년 이후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 OECD, World Bank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행실적은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의 1/3이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많은 이행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체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개발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통하여 우리 공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에 부합하면서 경제 상황,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더딘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도전과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것이다. 우리의 보완된 성장전략의 중점과제와 그 이행 일정이 포함된 안탈리아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을 반영한다.

06

우리는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제고라는 우리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 · 금융 · 노동 · 교육 · 사회 정책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선언”을 승인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선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 정책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고용노동장관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성장전략 및 고용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직업 ·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B20-L20 공동 선언”을 환영한다.

07

실업, 불안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에 따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G20 직업기술 전략”을 통한 직업기술 향상 및 직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표에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진전 사항 모니터링에 있어 OECD와 ILO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의 이행과 더불어 각국의 고용 계획 이행 여부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08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09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공공 부문 등에 의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식 공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종합하여 야심찬 국별 투자전략을 개발하였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자전략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율을 2018년까지 1%p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10

투자 관련 준비, 우선순위 선정, 집행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민간협력사업(PPP)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에 기반한 금융, 간단하면서 투명한 증권화 등을 포함한 대체적 금융 구조 개발도 고려하였다. 우리는 G20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 장기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참여촉진, 대체적 자본시장 수단과 자산에 기반한 금융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활용을 최적화하며 민간분야 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전하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이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할 강한 기업지배 구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왔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 G20/OECD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회와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세계 기구로서 기능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11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완된 성장 전략”을 포함, 무역 및 투자 강화 노력을 더 잘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건,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며,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한다. 우리는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동결 또는 철폐하기로 한 장기간에 걸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WTO·OECD·UNCTAD가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 그룹의 설립에 합의한다.

12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며,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도하 개발의제를 포함,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지침을 주게 될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뿐만 아니라 농업·개발·공공비축 등 발리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자·지역·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WTO 규정에 합치되고 동 규정 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개발 노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있어 “무역에 위한 원조”와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다.



3 회복력의 증진

13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스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대마불사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에 대한 공통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 손실흡수규제의 최초 버전에 합의하였다.

14

더욱 강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을 위한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다음 회의까지 FSB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비은행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자금융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기반 금융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국경간 결제서비스 축소의 현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추가 진전사항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 규제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개혁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합의한 시기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총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국의 고르지 않은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최초 연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규제체계의 견고함을 점검하고,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응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이행과 효과 및 전반적인 목적과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15

우리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G20/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 동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국경간 조세예규 정보교환 등 광범위하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각국의 적기 이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적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OECD에게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비G20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 포괄적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 개도국의 BEPS 등 국내재원조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 OECD, UN, WBG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비G20 개도국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와 다른 국제기구가 개도국 상황을 동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2017년 내지 2018년까지 이행에 대한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의 개도국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6

우리는 성장과 회복력이라는 의제를 지지하며, “2015-2016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 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공적 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산 공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뇌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산 회복 및 부패한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의 제공 거부를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 및 행정절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국별 이행 방안”의 발간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0년 개혁안 이행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임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14차 쿼타 검토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수장 및 고위급 직원들이 개방되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한 선출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동 기관의 인력 다양성 확대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 구성에 있어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내의 통화의 역할이 지속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SDR 가치평가 검토의 완료를 기대한다.

18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에 기여하는 강화된 집단행동조항과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의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발행된 국가채무에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기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WB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대해 곧 있을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재무관행 개선을 목표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 대화 조성을 통해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파리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4 지속가능성의 지지

19

2015년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인 바,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저소득 개도국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포함한 “2030 개발의제”는 전 지구적 개발 노력을 위한 변혁적이고 보편적이며 진취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우리는 2030 개발의제의 이행을 통해 빈곤 퇴치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에 관한 우리의 대화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G20과 저소득 개도국 관련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G20의 업무가 2030 개발의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2016년에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1

민간 부문은 개발과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20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 및 저소득 공동체가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금년에 마련된 “국제송금비용 감축을 위한 국별 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제 및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에 맞추어 평균 국제송금비용을 5퍼센트로 낮추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지불·저축·신용 및 여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금융 포용성에 관한 “금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내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20

우리는 금년도에 에너지 접근성, 식량안보 및 영양, 인적자원개발, 양질의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및 국내재원조성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 분야들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관한 G20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동 행동 계획은 글로벌 식량 안보 및 영양 공급을 개선하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및 식량 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자의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투명성을 증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며,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 자작농, 가족농 및 농촌 여성·청년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량 손실 및 낭비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구 식량 공급 -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밀라노 엑스포를 환영하며, 또한 G20 및 여타 국가들의 식량 손실·낭비의 측정 및 감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농업장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22

우리는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 원칙”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1차 G20 에너지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전 세계 11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29억 이상의 인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에너지 접근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 보고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을 승인한다. 동 실행 방안의 1단계는 에너지 접근성 문제가 가장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실행 방안은 G20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접근성이 개발의 촉진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동 실행 방안의 제1단계에서 우리는 각국의 필요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과 규제·기술개발과 보급·투자자 금융·역량 강화·지역통합 및 협력에 관하여 아프리카 국가 및 관련 지역·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행동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승인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협력 진전에 참여한 국가들로 인해 이루어진 금년의 진전사항을 강조하고, 중량 자동차·네트워크 기기·건물·산업 공정·전력 발전·에너지 효율성 관련 금융 등 운송 수단의 효율성 및 배기가스 배출 실적에 관한 기존 업무의 2015년도 성과물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스 시장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장관들로 하여금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원칙의 이행 지속에 관하여 2016년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다. 우리는 2015년 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언급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섭씨 2℃ 미만 억제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정서, 또 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한다. 우리의 행동은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파리 합의가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의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동적이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파리에서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개별국의 능력 원칙을 반영한 야심찬 합의에 도달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주요 국제 정부간 기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국별 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음을 환영하며, 미제출국들 또한 총회 개최 이전에 국별 기여방안을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각국의 국별 기여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각국의 협상가들이 진전 방안을 가지고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핵심 쟁점,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과 투명성에 관한 논의에 건설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참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5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이다. 이 위기와 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각지의 전례 없는 숫자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다른 형태의 인도적 수용·인도적 지원 및 난민들에게 서비스와 교육,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실향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주와 난민 흐름을 관리할 장기적인 준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민간 부문과 개인도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27

우리는 글로벌 성장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는 인터넷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보안과 사용에 대한 위협이 전 세계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환경에서 국가들은 안보, 안정 그리고 타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 촉진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 및 상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무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절취를 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국가는 디지털 소통의 맥락을 포함하여, 불법 그리고 임의적 사생활 침해로부터 표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규범 개발을 위해 유엔이 행한 핵심적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유엔전문가그룹(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특히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은 국가 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책임있는 국가 행위에 대한 규범에 따르고 이러한 규범을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5 결론

28

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터키의 금년도 G20 의장직 수행 및 성공적인 안탈리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감사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수임 하에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차기 회의를 기대하며, 2017년 독일에서의 회의 또한 기대한다.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

01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11.13 파리와 10.10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다. 우리는 테러 공격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와 장소를 불문한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우리의 연대와 결의를 재확인한다.

02

우리는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단결을 지속하고 있다. 테러 조직의 확산과 전세계적 테러 행위의 급증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글로벌 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장과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속된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03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자행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의도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테러 행위 및 테러 수단, 테러의 자행을 명백히 규탄한다.

04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떠한 종교, 민족, 문명, 또는 인종 집단과도 결부될 수 없으며 결부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

05

테러리즘 대응은 모든 G20 국가들의 주요 우선순위인 바, 우리는 유엔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인식하에 유엔 헌장 및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국제적 연대 및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유엔세계대테러전략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결의를 거듭 강조한다.

06

우리는 특히 모든 관할권 하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신속한 이행을 포함하여, 정보 교환 · 테러자산 동결 · 테러자금 조달의 형사조치 · 테러 및 테러자금에 관한 강력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통해 테러 자금 경로 차단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자금 차단 및 선별적 금융제재 강화 및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07

우리의 대테러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요인에 대한 대처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 과격화 및 테러 조직원 총원 방지 · 테러리스트 이동 차단 · 테러 선전 대응에 기반한 포괄적 접근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테러 조직원들이 I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테러 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직·간접적인 독려, 테러 행위의 조장 및 폭력에 대한 미화는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각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08

우리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이동 급증과 이것이 그들의 원소재지국, 경유국 및 목적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가져올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운영 · 여행경로 추적을 위한 출입국 관리 · 예방 조치·적절한 형사 사법적 대응 등 이러한 현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세계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09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며 최근 자행되는 테러 공격은 다시 한 번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과 연대 증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의 희생자들을 항상 추도할 것이다.

APEC 정상선언문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비전

우리 APEC 정상들은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통합되고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라는 전임 지도자들의 비전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결심하고 마닐라에서 회합하였다. 우리는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파리와 베이루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의 테러공격으로 드리워진 암운 아래,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떤 형태와 발현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 방식 및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의 근저에 있는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아니할 것이다. 경제성장, 번영, 그리고 기회는 테러리즘과 급진주의화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싸워 나가는 데 있어 국제협력 및 연대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불균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회합하였다. 불충분한 수요 증가, 금융 변동성, 실제 성장 및 잠재적 성장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한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상존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의 전망을 높이는 데 있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수요의 증가가 약화됨으로써 내수 촉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국 경제 구조 및 경쟁력의 급변에 따라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인프라 투자, 과학, 기술, 혁신 등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한 전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여전히 현실임을 유념한다. 우리는 빈곤의 감소와 퇴치를 위해 더욱 강력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대한 제도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감소가 아·태 지역 발전 및 번영의 촉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부문,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들이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 혜택을 얻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입각하면서도,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단결되고 확고하게 지지한다. 이는 지속되고 포용적인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 시장 안정 등의 달성을 위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혁신적 발전, 상호연계된 성장, 공유된 이익 등에 기반을 둔 개방 경제를 건설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가치, 중심성, 우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규범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WTO 20주년 계기에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w는 다자무역체제와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통화와 환율 정책에 관한 이전의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의 달성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역무역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고위관리들의 작업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제 무역비용을 절감해 줄 WTO 무역원활화협정 수락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거둔 성과를 환영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변환이 쉬운 것은 아니나, 우리는 질적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과 세계 경제의 번영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포용적 경제 구축

1. 포괄적이고 야심찬 구조개혁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며,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 우리는 미래 성장이 강건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에 의해 주도되며, 자연재해와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미래의 성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중진국 함정의 리스크를 경계할 것이다.

- 우리는 「2014 APEC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합의문」에서의 약속을 엄두에 두고, 「2010 APEC 성장 전략」의 공약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사회통합, 환경영향에 우선순위를 두는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을 채택한다. 우리는 검토를 위해 고위관리들에게「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의 촉진을 위한 APEC의 진전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 우리는 특히 역내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빈곤에서 구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2010 APEC 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를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 우리는 「APEC 신구조개혁전략」에 따라 이행된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며 「APEC 신구조개혁의제」를 환영한다.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계층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선된 규제환경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혁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의 새로운 성장분야 모색 노력을 지지한다.

- 우리는 「기업환경개선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환영하며, 2018년까지 창업,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계약분쟁의 5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1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행동계획(2016-2018)」을 승인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침이 될 이행 계획의 개발을 환영한다.

- 우리는 향후 15년에 걸쳐 세계적 차원의 개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야심찬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에 대한 공약과, 빈곤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회원국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양한 재원의 유치와 동원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아디스아바바 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 우리는 농촌 지역 개발과 빈곤 경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상품의 교역을 탐색하려는 2013년 APEC 정상들의 관련 지침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과 실용적인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 우리는 부패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불법 경제의 해악에 대응하고 국경간, 시장간, 그리고 공급망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회원국 간에 부패관리 의 송환, 인도, 자산 몰수,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범죄화, 부패방지의 영역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반부패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APEC 반부패기구 및 법집행기구 네트워크를 지지하며 「반부패 공직자 보호를 위한 세부 선언」을 환영한다.

- 우리는 테러 자금조달 방지와 사전 승객 위험분석 및 여타 조치를 통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여행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노력과 활동을 환영한다. 우리는 나아가 회원국들이 「APEC 대테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고, 테러 활동으로부터 인프라, 여행, 공급망,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2. 금융시장을 심화시키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 우리는 현재까지 이론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역내 구성원들이 신뢰할만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에 대한 접근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구성원들이 저렴한 자본에 접근하고 자금조달의 완전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이해력이 빈곤 경감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 우리는 공급망 내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금융서비스와 자본계정을 보다 자유화하는 금융 통합이 역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Cebu Action Plan)」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금융 측면에서 보다 통합되고, 투명하고, 복원력 있고, 상호 연결된 아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이니셔티브의 다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 우리는 역내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 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경험 공유를 포함한 거시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MSME(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

3.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응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을 위한 포용성을 촉진시키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가 더 이상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국경내외에 걸친 기업들의 협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는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이 기회가 있는 곳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많은 참여와 가치 부가를 권장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IP) 시스템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경쟁, 기업가정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 상거래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빈곤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은 번거로운 규칙이나 규제의 측면에서 우리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채택하고 각료들에게 의제에 명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이행할 것과 진전 상황을 2020년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 우리는 「APEC 일로일로(Iloilo)* 이니셔티브: 포용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을 환영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APEC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장의 조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국제화,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아래 최근 출범한 금융 인프라 발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간 부문과 국제 금융기관들이 공공 부문과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는 재난, 금융 위기와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복원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고안된 신용 보증 제도과 같은 공공 재정의 중요한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우리는 연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강조한다. 이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의 거래를 위한 진정한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보다 큰 소비자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에 있어, 우리는 국경간 프라이버시를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우리는 또한 고위관리들이 잠재적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작업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4. 지속가능하고 재난에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 우리는 한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우리 지역이 특히 재난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태풍, 지진, 화산폭발, 해수면 상승,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로 인해 확대된다. 우리는 자연재해의 빈도, 규모, 범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해의 결과가 점점 더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생산 및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일반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우리는 “뉴 노멀” 상황에 직면하여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적응력 있고 재난 복원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APEC 재난 위험 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프레임워크」를 환영하고 채택한다. APEC DRR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각료들이 APEC DRR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2016년에 행동계획을 만드는 한편, 사업 지속성 계획,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탐색 및 구조, 재난 후 복구, 적절한 구호 촉진, 역량 강화 증진 등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을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생명과 생활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APEC 비상시 인도주의적 물자 및 장비 이동에 대한 원칙」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2015-2030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주목한다.
-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을 통하여 금융 복원력을 확립하려는 재무 장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노력에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한, 혁신적인 재난위험 금융 및 보험 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 우리는 APEC 수석과학 자문위원 및 동급 인사가 기타 적절한 APEC 산하회의와의 조정을 통하여 긴급 상황 시에,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문을 탐구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우리는 재난 복원력에는 전염병의 확산 감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건강한 아태 2020 로드맵」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염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APEC간의 파트너십과 역내 혈액공급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환영한다.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우리는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야심차고 지속적이면서 역동적인 합의를 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에너지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에너지 총 집약도를 4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중 재생가능 에너지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목표를 재천명한다.
-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중기적으로 단계적 철폐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동료 검토를 하기로 지원한 회원국들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목표로의 추가적 진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 접근 촉진을 위한 에너지 복원력의 중요성을 단언한다. 우리는 에너지 복원력 작업반 출범 이니셔티브와 아태지역 전력 인프라의 품질 향상 이니셔티브, 그리고 APEC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의 설립을 평가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바이오 연료,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민간 원자력 발전, 첨단석탄기술, 액화천연가스, 태양, 풍력, 해양 에너지 기술의 기여를 탐색할 것이다. 우리는 APEC 지역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통합된 천연가스 시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 우리는 역내에서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개선된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그리고 영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원력 있는 해양 및 연안 자원, 수산자원 손실 감축, 그리고 농업 산업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 행동 계획에 관한 APEC 고위급 정책대화를 이행할 것을 고위관리들에 지시한다. 우리는 APEC 식품 안전 협력 포럼과 동 포럼의 파트너십 훈련 기관 네트워크를 지지한다. 우리는 APEC의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의 진전을 격려한다.

-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경감하는데 있어서의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역대 적어도 2천만 헥타르를 모든 종류의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시드니 선언의 희망적 목표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보존 및 복구, 그리고 불법 벌목과 이와 연관된 무역 방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는 시드니 선언의 산림에 관한 희망적 목표의 진전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환영한다.

-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약속에 이어, 우리는 불법 공급, 수송 및 수요의 추가적 감축, 국내외 법 집행 강화, 법률적 제도 향상 및 기타 형사사법 수단 증진, 회원국들이 야생생물 밀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분위기 제고 노력, 그리고 국경을 넘는 법 집행 협력 및 야생생물 관련 적절한 법 집행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야생생물 밀매와 관련된 부패 문제와 싸우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5. 도시화가 성장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 도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하는 창, 혁신의 중심지이다. 우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도시계획과 충분한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폐기물 관리 및 물 관련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포함하여 APEC 내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우리 고위관리들의 사업을 환영한다.

- 우리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탄소이면서 사람 중심적인 새로운 유형의 도시화에 대한 약속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의 아태지역 도시화 파트너십의 공동 설립을 위한 APEC 협력 이니셔티브의 이행 노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6년에 도시화 관련 APEC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APEC 저탄소 모델 타운 프로젝트, 그린코드 및 기준을 사용한 건물, 그리고 APEC「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구상」의 이행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탄소 발전 도시환경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을 장려한다.

-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 도시화를 포함한 역대 인구변화가 우리지역의 식량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식량과 물 공급을 개선하여 역대 안보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며 도심, 지방 및 원거리간 더 나은 연계성, 투자 원활화와 기반시설 개발, 그리고 식량 가치사슬로부터 손실 및 낭비 감소를 통하여 역대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농촌공동체가 역내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역대 농촌공동체의 빈곤 근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농촌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우리는 포용적 이동성과 글로벌 생산망 복원력 달성의 진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개발하고 교통 부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교통 네트워크 연계성에 관한 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다.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6. 일반대중이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 1996년에 우리는 모든 APEC 회원국들이 개방된 교역 환경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역량강화 이행 및 작업반과 산하 회의 간 협업 증진의 성과와 공동노력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역내 분절-세계시장에 연결되어 통합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도태된 이들간-된 공동체의 출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우리는 역대 경제성장의 다음 단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의 수요에 따른 직업기술 개발이 인적자본 투자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변화 많고 광범위한 기술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특히 여성과 청년 등 개인은 과학, 기술, 혁신의 분야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복원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노동인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직업기술 및 직무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인들, 교육훈련 제공자들, 고용 서비스업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한다.

- 우리는 인적자본 개발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욕과 인적 연계성 증진 및 국경간 교육협력의 계속적 진전을 향한 우리의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역대 대학생 백만 명 이동 목표의 조기 달성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인적자본 개발과 ICT 분야의 진전 및 그에 따른 혜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 우리는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조치가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여성의 완전한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APEC 여성과 경제 상황판'을 포함하여 APEC 내에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주류화하는 것을 지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장애인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APEC의 협력 성과를 환영하며, 회원국들 간 포용 발전 촉진을 위한 협업 증진을 독려한다.

- 우리는 인적자본의 개발과 포용적 성장 촉진에 있어서 보건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열악한 보건상태가 경제 및 재정제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에 추가적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통합 의제 진전

7.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 우리는 APEC 지역경제통합 의제 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전시킨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TAAP 실현에 관한 전략적 공동연구', '정보공유메커니즘', '제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하여 'FTAAP 실현에 대한 APEC의 기여를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행에 있어 고위관리들이 이룬 성과를 평가한다. 우리는 각료 및 고위관리들에게 동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내년 페루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전략적 공동연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권고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FTAAP이 현재 진행 중인 역대 FTA들에 기초하여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FTAAP이 고품질의 통합된 것이어야 하며,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FTAAP을 향한 경로들'에 담긴 비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TPP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최근 역대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FTAAP을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한다.

- 우리는 2012년 APEC 환경상품리스트의 실행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약속을 실행해 가고 있는 회원국들을 축하하며, 아직까지 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완벽하고 포괄적으로 통합되며,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아태지역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분야에서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5)' 이행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연계성 청사진'의 계속적 이행을 보장하고, 역대 지역-소지역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우리는 역대 연계성 및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이니셔티브 이행의 성과와 연계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재원조달 병목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이니셔티브들의 진전을 평가한다. 우리는 지역경제통합과 아태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간의 협업 진전을 독려한다.

- 우리는 아태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질의 인프라와 연계성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프라 구축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방식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장기 인프라 투자를 활용하며, 포용적 인프라, 도시개발, 역내 연계성 관련 노력의 지속을 위해 「세부 행동계획(CAP)」에 제시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8. 경제 성장과 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 우리는 국제 서비스무역이 국경 간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과 생산성을 신장시키며,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전 경제적 혜택을 감안할 때, 서비스무역이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MSME)이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성장은 서비스 관련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민이 높은 질적 성장의 혜택을 받고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한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2016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개발하여, 일련의 공조된 조치들과 함께 2025년까지 달성될 상호 합의된 목표들을 채택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관련 이니셔티브를 평가한다.

협력 강화

9. 공통의 과제 대응에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 우리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그간 우리가 APEC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우리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키고, 공동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우리의 성과들을 발판 삼아, 우리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원국내 및 회원국 간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회원국내 규범 제정에 있어 잘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을 취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모든 범주의 국내·국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공협의 절차에 의존한다.
- 따라서 우리는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보다 포용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부분, 지방정부 관료, 시민사회, 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성, 청년, 장애인, 산업전문가와의 협업 증진을 환영한다.

10. 각료, APEC 프로세스, 그리고 모든 위원회와 산하 회의의 작업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하여

- 따라서 우리는 2015 APEC 합동각료성명서를 승인하며,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급 정책대화, 재무장관프로세스, 고위관리회의의 산하 위원회 및 실무그룹과 모든 관련 메커니즘들의 결과에 반영된 각료 및 고위관리들의 작업을 평가한다.
- 우리는 각료 및 고위관리들에게 이 선언과 이전 회의들에 담긴 비전을 유념하면서, 2015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정책대화의 결과 문서의 권고사항, 작업 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을 포함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지시한다.
- 우리는 관련 회원국의 APEC 기금 기여, 아태자유무역지대 및 글로벌 가치사슬·혁신적 성장·경제개혁과 성장·연계성·광물 기금의 신설을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자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관련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맞춰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작업을 기대한다.

기술진보, 도시화,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증진된 연계성이 추동하는 경제통합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우리의 공동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과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상호존중과 신뢰, 포용, 윈-윈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 역량을 발휘하여 공동의 발전, 번영 및 진보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진실하다면, 아태 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APEC의 작업이 연속적인 과정이며, 의제의 연속성이 APEC의 적실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과거 APEC 개최국들의 비전 및 작업을 진전시킨 주최국 필리핀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16년 페루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장래 APEC 개최국인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2025년 APEC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



다자무역체제 및 제10차 WTO 각료회의 지지 성명문

01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 축하에 동참한다. 아태지역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리며 무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해 온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WTO의 관리 하에 다자무역체제의 가치, 중심성, 우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WTO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 기반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02

WTO의 성과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경제의 역동성과 복원력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다자무역체제의 기존 틀 안에서, 우리는 APEC이 WTO의 효과성과 모두의 혜택을 위한 목적의 증진을 계속하여 지지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03

우리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를 포함한 균형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고, 포스트 나이로비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각료들에게 구체적이고, 유의미하며, 균형 잡히고 개발 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을 지시한다.

04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2013 발리 패키지의 일부로 승인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조기 발효는 세계 무역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 WTO의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전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한 APEC 회원국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APEC 회원국들이 가능하면 제10차 WTO 각료회의 이전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05

또한 우리는 발리에서 각료들이 합의한 과도기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면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비축 관련 이슈에 대해 영구적인 해법을 합의 및 승인하려는 모든 일치단결한 노력을 협상, 도출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관여하자는 WTO 회원국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 외 발리 결정들(Bali decisions)의 이행 진전에 고무되었으며 계속해서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06

우리는 “제6항 체제(Paragraph 6 System)”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 촉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0차 WTO 각료회의 의정서의 조기 발효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개발지향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WTO의 잠재력을 잘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07

우리는 2018년 말까지 신규 보호무역주의 조치 도입 동결 공약을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보호주의적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를 철회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WTO 협정에는 합치하지만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그러한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라면,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08

우리는 양자, 지역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세계 무역 자유화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양자, 지역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WTO 협정에 합치되고, 또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에서 품목 범위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고, 제10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관세 철폐기간 협상을 타결하려는 참가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APEC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동 협정에 보다 폭 넓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 우리는 또한 상당수의 APEC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WTO 환경상품 협정에서의 최근 진전 상황을 환영하며 제10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는 참가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결된 복수국간 정보기술협정의 확대와 환경상품협정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기여가 다자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노력을 유념한다.

09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APEC 주제 아래, 우리는 제5차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리뷰의 성공을 환영한다. 우리는 WTO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APEC은 계속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다.

RCEP 협상 공동선언문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1

우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아세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정상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였다.

02

우리는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래 RCEP 협상 수행의 기초와 정신을 마련한「RCEP 협상 개시에 대한 공동선언문」과 「RCEP 협상 지침과 목표」를 상기한다.

03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한다. 각국 장관들이 마련한 돌파구 이후,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실질적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협정문 협상 역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04

세계인구의 절반과 전세계 생산 및 교역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RCEP은 수십억 명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다. 우리는 RCEP이 성장 동력이자 광범위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05

우리는 각국 장관들과 협상단에게 노력을 배가하도록 지침을 내리며, 2016년 RCEP 협상이 타결되어,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경제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평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

부속서

협의 문서

- 안탈리아 액션플랜
- 성장전략 이행평가 보고서
- G20 투자전략과 G20/OECD의 G20 투자전략에 관한 보고서
- 다자개발은행의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액션플랜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 G20/OECD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고위급 원칙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 액션플랜
- FSB의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TLAC) 공통 국제기준
- IAIS의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손실흡수규제
- G20과 저소득 개도국 관련 프레임워크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관한 G20 행동 계획
- 국제송금비용 감축에 관한 고위급 원칙
- G20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 보고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 G20 직업기술 전략
-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선 정책 과제
- 청년 고용 성과 증진을 위한 G20 정책 선언
-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
- 민간 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
- G20 반부패 정보 공개 원칙



APEC
PHILIPPINES
2 0 1 5



2015 박근혜 대통령

G20 APEC ASEAN+3 EAS 한·ASEAN 정상회의

발행일
2015.12.



2015

박근혜 대통령
G20·APEC
ASEAN+3·EAS·한·ASEAN 정상회의
